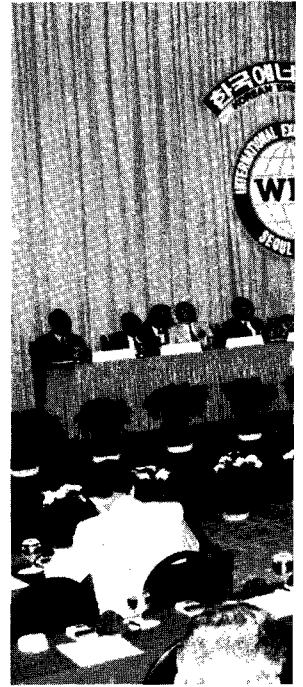


세계에너지會議 '87서울國際執行理事會 開幕

— 國內外人士 500여명 參加,
「韓國에너지의 날」 行事도 —

세계에너지會議(WEC) '87서울
國際執行理事會가 9월14일부터 18
일까지 44개국 9개 국제기구에서
외국인 220명을 포함, 총 500여명
의 국내외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또한 16日には「한
국 에너지의 날」로 정해 특별행사
를 갖었다.



세계에너지會議(WEC)의 의결 및 집행기구인
國際執行理事會(IEC)의 年次會議가 9월14일부
터 18일까지 쉐라톤워커히호텔에서 성대히 열렸다.

韓國에너지協議會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브와
뚜 WEC총재를 비롯해 포스터 IEC의장, 토도
리에프 불가리아 에너지성 장관 겸 IEC 부의장
등 44개국 9개 국제기구에서 외국인 220명을
포함, 총 500여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석하여 성
황을 이루었다.

첫날인 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 常任
및 特別委員會에서는 국가별 에너지자료가 발표
되었는데 開發途上國의 에너지問題, 새로운 에
너지의 전망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교환과 자유
로운 토론을 통해 세계 에너지문제에의 발전방향
을 모색하였다.

特別行事로서 「韓國 에너지의 날」로 정한 16일
에는 코리안 에너지데이 개최식과 아울러 에너
지展示會가 열렸다.

워커히 그랜드볼룸에서 가진 「코리안 에너지
데이」개회식에서 韓國에너지協議會의 韓鳳洙회

장(WEC 한국국내위원회 의장, 한국전력공사 사
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에너지회의 국제집행
이사회 개최에 즈음하여 「한국 에너지의 날」행
사를 갖고 각국의 참가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에
너지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에너지를 효율적이
고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WEC의 이상을 공
감하는 국제적인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기
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는 부존에
너지자원이 빈약한 자원빈국으로서 우리에게 부
과된 資源問題 뿐만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문제
를 해결하려는 인류의 공동노력에도 동참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에너지전시회 개장
식에서 韓鳳洙회장은 李鳳瑞 동자부차관과 브와
뚜 WEC총재 등 국내외 에너지관계 인사들과
함께 개장테이프를 끊고 한국 에너지産業의 면
모를 보여주는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오전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오후에
는 올림픽주경기장을 방문, '88서울올림픽의 완
벽한 준비상황을 설명 들은 후 오후3시 韓國電
力公社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韓電의 현황과



◀ 「韓國 에너지의 날」 閉會式 光景

韓國電氣 100年을 소개하는 대형 멀티비전을 관람하고 각국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었다.

鄭根謨 IEC 부의장의 주재로 가진 이날 강연회에서 브와뚜 WEC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꾸준히 추진하고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줄이며 석유를 다른 에너지로 대체해서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달성한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WEC가 세계각국에 건의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WEC 기획위원장인 데이비스씨는 「세계 에너지의 現況과 展望」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각국의 에너지 開發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에너지源의 다양화를 위한 연구의 진전으로 에너지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펴기도 하였으며, 토도리에프 불가리아 에너지성장관과 잘라루딘 말레이시아 전력청장이 각각 自國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IEC 본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崔昌洛 동자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세계 에너지계의 현실은 예측불허의 유가등락 등으로 난관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시의적절하게 열린 이번 회의에서 장래에 닥쳐올 에너지문제에 대해 함께 인식함으로써 불확실성을 떨치고 희망적인 미래를 펼치자』고 당부했다.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실시된 본회의에서는 이번 '87 IEC회의의 결과보고와 국가별 활동상황 및 '88 IEC 스웨덴회의 준비상황 보고가 있었으며, WEC 機構를 개편, 의장자문위원회 (Chairman's Advisory Committee)를 신설하고 종전의 기획위원회 산하의 Conservation Commission을 Conservation & Study Committee로 격상시키는 한편 서독의 오토씨를 IEC 부의장으로 새로 임명하였다. 또 韓國電力公社 기술연구원 南廷一원장이 Conservation & Study Committee 한국대표로 선출되었다.

본회의 후 오전 11시에는 5일간의 회의를 마무리하는 閉會式이 있었다. 또 이날 저녁에는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韓鳳洙 WEC 한국국내 위원회 의장이 마련한 만찬회에 참석, 1시간여 동안 한국 민속무용을 관람하며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계는 하나임을 다시 확인했다.

한편 이번 회의기간 중 함께 내한한 가족들은 올림픽경기장, 국립중앙박물관, 창덕궁 등을 돌아보았으며, 회의가 끝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古里·靈光원자력발전소, 광양제철, 독립기념관, 온양민속박물관 등 산업시설과 각종 문화유적지를 돌아보았다.